

5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국채금리 급등에 휘청..다우 2%↓</p>	<p>뉴욕증시가 급반등 하루만에 큰 폭 하락세로 돌아섰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美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서 제너럴 모터스(GM) 약재도 부담으로 작용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73.47포인트(2.05%) 하락한 8,300.0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35포인트(1.11%) 떨어진 1,731.0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7.27포인트(1.9%) 하락한 893.06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증시는 오전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4월 기존주택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는 등 경기지표에선 이렇다할 약재도 없었음. 그러나 GM이 채권단과의 협상실패로 급락세를 보이며 다우지수의 발목을 잡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올 1분기 부실 가능성이 있는 `문제은행`이 급증했다고 밝히자 은행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음.</p>
<p>GM 약세 지속..채권단 양보협상 결렬로 파산보호 불가피</p>	<p>제너럴 모터스(GM)의 주가가 20%나 급락했음. 채권단의 양보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이 부담이 되었음. GM은 이날 채권단과 진행해온 부채의 출자전환 협상이 실패했다고 밝혔고 GM은 270억 달러의 채무를 회사 지분 10%와 전환하는 것을 채권단에 제안했지만 채권단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득할만한 생존계획을 제출해야하는 GM으로선, 채권단 협상 결렬로 파산보호 신청에 한발더 다가서게 되었음. NBC는 소식통을 인용, GM이 이번주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보다는 자구노력 데드라인인 다음주 월요일께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p>
<p>4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2.9% 증가...예상치 상회</p>	<p>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4월 기존주택판매(계절조정)는 연율 468만채를 기록해 전월(연율 455만채)보다 2.9% 증가했음.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음. 블룸버그통신과마켓워치 등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율 466만채였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에 비해선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의 세제혜택, 여기에서 크게 떨어진 집값 등이 전월보다 주택수요를 늘렸음.</p>

제목	주요 내용
<p>英 파운드 강세..달러대비 7개월래 최고</p>	<p>27일(현지시간) 오후 3시23분 현재 파운드-달러 환율은 0.6257% 상승(파운드가치 상승)한 1.6025달러를 기록.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격은 지난 20일 200일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고, 이후 2% 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의 경우 그동안 금융위기 여파로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지만, 최근 금융위기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음. 파운드화는 울들어 유로화에 대해서도 3.3% 가량 상승했음.</p>
<p>유럽증시, 사흘째 상승..지표개선 영향</p>	<p>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는 0.7% 상승한 219.48로 장을 마쳤음. 하루전 미국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기대 이상으로 경충 뛰어 오른 가운데 프랑스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도 개선세를 보인 점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음. 영국의 HSHC 홀딩스가 2% 올랐고, 프랑스의 BNP파리바는 1.5% 상승했다. 스페인의 은행인 산탄데르도 2.4%의 상승세를 기록.</p>
<p>4월 경상흑자 42.8억달러..석달 연속 흑자</p>	<p>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2억8,000만달러로 전월의 66억5,000만달러에 비해 24억3,000만달러 감소. 경상수지는 울들어 1월을 제외하고는 석달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중임. 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28억6,000만달러로 늘어났음. 상품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9.6% 감소했지만, 수입은 35.6%나 감소한 탓임.</p>
<p>신용잔고 4조원 육박...경계감 고조</p>	<p>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연초 1조4,791억원을 기록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26일 기준으로 3조9,475억원을 기록, 작년 6월30일 4조81억원 이후 처음으로 4조원대에 바짝 다가섰음. 이는 최근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신용거래를 포함한 외상거래의 주요 고객인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난 데다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한도를 확대하거나 신용거래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p>
<p>금융연구원장 "외환보유고 확충해야"</p>	<p>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8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규제하고 은행권 전체나 총 외채에 대한 정책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규제는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은행 국내 지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p>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